



심민 임실군수와 문영우 임실군의회 의장, 조성균 남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은 비롯한 임실지역 기관단체장과 신필권 (주)푸르밀 전주공장장 (주)미가 고해석 대표이사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임실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

전주상공회의소, 관촌면 푸르밀공장 회의실서 지역상공인 50명과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21일 임실군 관촌면 (주)푸르밀 전주공장 회의실에서 임실지역 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임실지역 기관·단체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민 임실군수와 문영우 임실군의회 의장, 조성균 남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은 비롯한 임실지역 기관단체장과 신필권 (주)푸르밀 전주공장장 (주)미가 고해석(신평농공단지협의회장) 대표이사, (유)세일산업 김인수(오수농공단지협의회장) 대표이사, 일진제강(주) 백운화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임실지역 상공인들이 기업경쟁에 애로

가 없도록 임실군과 협력하여 상공회 의소 차원의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마련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임실지역 상공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지역을 방문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전주상공회의소에 감사드린다며, 임실지역 상공인들이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장은 “산업을 전력의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는 순간 정전이 한정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그동안 퀴터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없었는데 변전소 증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실전통한과 문기섭 대표는 “농공단지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34세까지이고 장년인턴제는 45세부터 적용되다보니 그 사이에 있는 연령층은 지원이 없어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목장 이지혜 대표이사는 “기존 체험형 목장과 치즈테마파크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견의했다.

임순여래 서인순 대표이사는 “대중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요청했다.

/신광영기자

글로벌 외식 전문가 적극 양성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외식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1일 농립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는 중국, 미국, 동남아 등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외식 전문 인력 4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식기업들이 교육 수료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비용을 지원(3개월간 180만원)해 전문직 고용 시스템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실무교육과 기업체 현장실습으로 구성했다.

한편 청년디리미켓 상인들은 10월 오픈에 앞서, 9월 29일부터 10월 29일 까지 개최되는 600년의 소리, 전주 남부시장 K-SALE FESTA'에 체험이벤트로 참여하여 고객들을 먼저 만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천변 징검다리마켓 준비 만전

내달 2일 오픈 위해 박차

‘천변 징검다리마켓’이 10월 오픈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변 징검다리마켓은 천변에 빠져있 는 가설점포 8곳에 문화·예술 점포를 입점시켜 전주남부시장을 글로벌 명품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징검다리 점포는 원회역사, 한지등불, 일공예, 자수디자인 팔찌 등으로 점포주들이 직접 생 산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와 체험을 진행한다.

또 남부시장 옛 사진을 전시해 놓은

쉼터에서 관광객들의 침 보관 등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 천변 점포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생선냄새 때문에 새로 들어올 가게가 걱정됐는데, 짚은 사장이 시장인데 생선도 팔고 악세사리도 파는거 아니냐고 해서 걱정을 덜었다”며 “남부시장에 짚은 상인들이 들어오고, 요즘 사람들 찾는 물건도 생기고 좋다”고 환영했다.

한편 징검다리마켓 상인들은 10월 오픈에 앞서, 9월 29일부터 10월 29일 까지 개최되는 600년의 소리, 전주 남부시장 K-SALE FESTA'에 체험이벤트로 참여하여 고객들을 먼저 만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GMO 농산물 5년간 1068억t 수입

대기업 5곳 ‘99% 차지’

지난 5년간 총 1068억t의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요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67억712t의 GMO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했다.

이 가운데 주요 식품 대기업 다섯 곳은 전체 수입량의 99%에 달하는 1066억8975t을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이 전체 수입량의 31.98%에 달하는 340만t을 수입해 가장 많았고 대상 236만t(22.12%), 사조해표 177만t(16.61%), 심양사 172만t(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t(13.17%)을 수입했다. 헤미타업체별 수입량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식용 GMO 대두의 경우 5년간 6개월 동안 490억5557t이

수입됐고,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거의 대부분을 수입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가장 많은 70만t의 식용 GMO 대두를 수입했다.

식용 GMO 옥수수의 경우 총 570억1533t이 수입됐고 대상, 심양사

(전 심양제넥스), 인그리디언코리아 (전 콘프로덕츠코리아)가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넘나드는 양을 수입했다.

특히 대상의 경우 매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GMO 옥수수 수입률을 수입했다.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이 식용 GMO 옥수수 수입을 시작했다.

GMO 유채의 경우 엠에스무역, 제이제이무역 등이 소량 수입해오고 있고 CJ제일제당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t과, 5만t를 수입했으나 이후에는 직접 수입은 하지 않았다.

주요 식품업체 대기업들이 GMO 농산물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소비자들이 GMO 농산물들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를 업체들이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행 표시제도는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GMO가 원재료 함량 5위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가 면제된다.

/뉴스



누에로 만든 익힌 ‘숙집’

음주 질환에 특효

다 지난 누에로 만든 익힌 숙집이 알코올성 지방간을 비롯해 위염, 주취, 숙취 등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힌 숙집은 누에가 완전히 자라 몸속에 견시단백질이 가득 찬 익은 누에(숙집)를 수증기로 썩어서 동결 건조한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21일 차의과학대학 교와 공동으로 익힌 숙집의 건강기능효과 구명을 위한 동물실험 결과, 알코올성 질환 예방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방간 실험을 위해 익힌 숙집을 먹이지 않은 래트(실험용 쥐)와 숙집을 먹인 래트를 구분해 20% 에탄올을 무게 1kg당 3g씩 4주간 매일 투여했다.

그 결과 익힌 숙집을 먹이지 않은 래트에서는 지방간이 다양 형성되고 간경화를 일으키는 섬유증이 증가했다.

그러나 익힌 숙집을 1일에 0.1g/kg(60kg 성인 기준 1.2g)를 4주간 먹인 경우 지방간이 20% 감소했고, 섬유증 형성이 21% 줄었으며, 섭취량을 늘릴수록 효능도 더 증가돼 알코올성 지방간과 이로 인한 간경화 예방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뉴스

“올 가을 가전제품 구매 최적시기”

전자랜드, 환급정책과 프로모션 동시에 진행

전자랜드프라이스킹은 21일 “이번 가을은 환급정책과 다양한 프로모션이 많아 가전제품을 구입하기에 최적기”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정책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 민콤 김치 냉장고 1등급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구매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환급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가전제품들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전자랜드가 30일까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TV(41인치 이상) 72개 모델, 드럼세탁기 49개 모델이며, 구매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환급은 전자랜드 삼성카드⁷로 결제 시 카드사를 통해 개시백 형태로 이루어진다.

/뉴스

또 전자랜드는 30일까지 전자랜드 세일 페스타⁸를 진행, 일부 행사제품을 TV 58%, 냉장고 47%, 전기렌지 51%, 미세기 51%, 인미의자 50%, 청소기 44% 할인 판매한다.

총 할인판매 제품은 33개 모델이며, 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에 별로 전자랜드 멤버십 마일리지를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증정한다. 특히 TV는 40인치 이하 제품이 햄시제품으로 포함되어, 소비자가 오는 30일까지 구매할 경우 전자랜드 세일 페스타⁹부터 정부 환급 정책까지 2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¹⁰’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이번 가을을 역대 최대리고 해도 될 민콤의 혜택이 물렸다”라며 “구매를 고려했던 제품이 있다면 전자랜드에 방문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고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농협, 11월까지 농촌일손돕기

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농협 일손돕기’를 11월까지 1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 종양본부는 21일 종양회, 금융·경제 지주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해 전국 농협의 수확기 일손지원 시작을 알렸다.

이날 농협 임직원들은 일손이 없어 농작업 시기를 놓친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지원했다.

/뉴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